

FOCUS

- 2014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
-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GSEF)

ZOOM IN

- 서울시, 경제수도 상하이 - 유럽금융허브 룩셈부르크와 협력약속

HOT ISSUE

- 서울시,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
-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시급 조사결과 발표
- 가능성 있는 창업실패기업 재기 지원
- 연대보증 대출 ·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발령 및 예방요령

PHOTO@NEWS

- 전통시장박람회
- 도시농업박람회
- 핸드메이드박람회
- 글로벌기업채용박람회
- 희망취업박람회

김가영(서울시 경제진흥실 gykim@seoul.go.kr)

| 2014 SIBAC 총회서 인구고령화와 지속적 경제성장 해법 모색

• 글로벌 경제리더들, 고령화 사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스마트도시 해법 제시



글로벌CEO와 경제리더들이 서울에 모여 고령화 사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스마트도시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10월 31일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해법 : 인구고령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제로 「2014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도미니크 바튼 맥켄지앤컴퍼니 글로벌회장, 노부유키 고가 노무라홀딩스/노무라증권 이사회장, 마조리 양 에스켈그룹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인구고령화 순기능과 고령친화 선도도시 비전 흥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구축 자문

올해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인구고령화사회의 순기능과 이를 통한 신경제패러다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고령친화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고 고령친화산업과 미래인적동력 발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서울의 선진 정보통신(ICT)기술과 뛰어난 인재풀로 조성 중인 ‘흥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에 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 크리스토퍼 포브스 등 서울의 위상제고에 힘쓴 3명에게 서울 명예시민증 수여

이와 함께 서울시의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힘쓴 SIBAC위원 ▲크리스토퍼 포브스(포브스 부회장) ▲루돌프 슬레이스(ASL 자동차 과학기술(상해) 회장) ▲로날드 앤더슨(보험 금융서비스 컨설턴트)에게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SIBAC은 2001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차례 연례총회를 개최, 금융·투자·관광·도시마케팅 등 총 258건의 자문을 받았으며 그중 220건을 시정에 반영했다.

<경제정책과>



|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발전 위한 'GSEF 2014' 개최

- 사회적경제 혁신도시 - 민간기관 손잡고 글로벌 협의체 창립, 의장도시로 서울 선출



전 세계 사회적경제 혁신도시와 민간기관들이 모여 사회적경제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가 서울시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협의체는 지방정부, 민간기구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상시적 국제기구다.

- 도시재생 · 사회적 금융 등 23개 포럼개최, 선진사례 공유

서울시는 11월 17일~19일에 몬트리올, 바스크 주정부 등 18개 도시와 이탈리아 트랜토협동조합연맹 등 43개 사회적경제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적경제전문가 및 활동가들과 협동과 연대의 정신을 자유롭게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17일~18일 열린 포럼은 '변화를 향한 연대'를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사회적 금융 ▲도시재생 등 23개 세션을 개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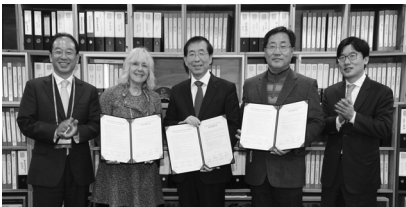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현장 채택, 서울을 의장 도시로 차기개최도시 몬트리올로 정해

19일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연대와 협력방안을 담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헌장> 채택했으며, 서울을 의장 도시로 차기개최도시는 몬트리올로 선정했다.

참가 도시와 기관들은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전 세계의 사회적경제 주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늘리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경제과>

사회적 경제 '칼 플라니 연구소' 아시아 최초 서울에 등지



사회적경제 대표 연구기관인 '칼 플라니 연구소 아시아 지부'가 내년 초 서울에 문을 연다. 박원순시장은 11월 19일 마가릿 멘델 칼 플라니 정치경제연구소장, 송경용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칼 플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 서울시, 경제수도 상하이, 유럽금융허브 룩셈부르크와 협력약속

- 상하이시와 경제무역-도시관리-도시교통-문화예술 등 6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박원순 시장은 지난 11월 4일, 상하이를 방문 양승(楊雄) 상하이시장을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80여명 현지 기업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환경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교류협력과 투자유치 물꼬를 텄다.

서울시와 상하이시는 ▲경제·무역 ▲도시 관리 ▲도시교통 ▲문화예술 ▲관광 ▲인재양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투자환경설명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분야뿐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투자가 늘고 중국자본 유치를 견인해내기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쳤다.

- 룩셈부르크와 경제협력 확대로 공동이익 추구, 상호발전 방법 모색

또 지난 10월 6일에는 에티엔느 슈나이더(Etienne Schneider)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을 만나 서울시와 룩셈부르크가 경제협력 확대를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상호발전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하자는 「서울시- 룩셈부르크 간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은 서울시와 룩셈부르크 양측 소재 기업들의 상호투자, 정보교환, 교류증진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협조 등 전반적인 경제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원순 시장은 연이은 교류협력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해 양도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유치과>



| 서울시, 최저임금보다 26% 높은 '생활임금' 내년 도입

서울시가 모든 시민들이 일을 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제공이 가능하고 물가 수준이 반영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체계를 말한다.

- 3인 가족 기준 시급 6,582원, 정부최저임금보다 1,372원 ↑

서울시가 산출한 3인 가족 기준 생활임금은 시급은 6,582원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5,210원보다 1,372원 높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근로자에 대해 1차적으로 적용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점차 용역·민간위탁 등 민간기관에도 확대, 2016년부터는 의무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영역 확산위한 캠페인 개최, 적용 우수기업에게 각종 우선권 부여 계획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확산캠페인을 펼치고,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도 부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라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정책과>

| 가능성 있는 창업 실패기업 재기 돕는 '리스타트 캠프' 가동

자금과 경험부족, 인프라 미흡 등으로 창업에 실패한 기업 중 재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 밀착지원을 통해 재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서울시는 재도전이 어려운 환경에선 창업 자체가 활발해 질 수 없고 집중적인 교육과 실패요인 분석 없이는 또다시 창업에 실패할 수 있다며, 집중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해 준비된 기업가를 양성하는 <리스타트캠프 2014>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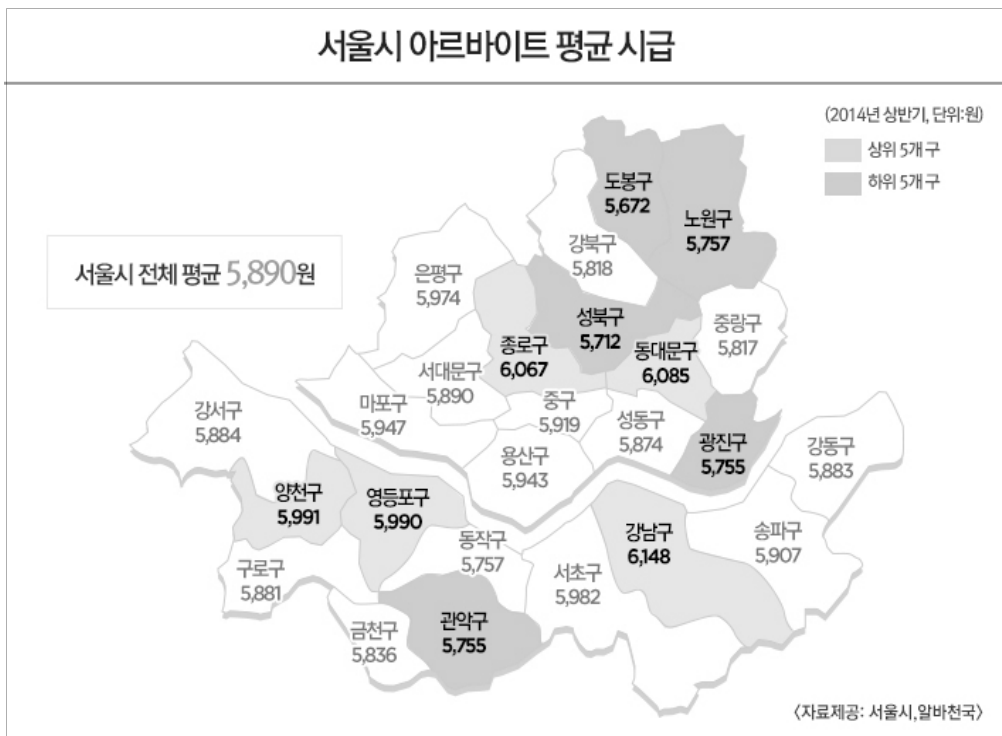
리스타트 캠프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45세의 청·장년층 50팀을 선정, 1차적으로 약 20일간의 집중교육과 멘토링, 사업모델(BM) 수립을 도와준 후 이들 팀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최종 20개 팀을 선발해 약 1년간 인큐베이팅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리스타트 캠프’는 민간 VC와 연계해 맞춤형 멘토-멘티를 형성, 투자연계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동시에 지원하는 ‘선도형 재창업 지원체계’를 갖춰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이외에도 저신용자 교육, 민간투자자 연계 재도전 프로그램 운영, 재창업 특례보증상품 지원 등 참여자 중심의 지원도 추가했다. 아울러 선발된 기업들이 사업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창업 성공 CEO 특강과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제도 사례 등도 함께 소개한다.

<창업취업지원과>

|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시급 5,890원, 최저임금보다 680원 ↑



<일자리정책과>

| 민생침해 경보 발령 및 예방 요령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급증...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 발령 (11.3)

- #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 접수된 피해는 해약환급금 지급거부·과소지급 등 계약해지 관련 53.9% >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 약정된 서비스 불만이 8.4% 순이었다.

● 피해예방 요령 4가지

1. 계약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 등록여부,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찾아보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
2.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 필수 확인. 계약서·회원증서·약관영수증 등은 보관. 계약해지 시 상조회사에 원본 제출시 추후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사본을 남김
3. 가입 후에도 수시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확인
4.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 수령방법 등 확인

지난해 대비 4배 증가,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 발령 (10.21)

- # 대다수의 피해사례는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 는 식의 사기·기망행위였다.
- # 이 외에도 행위무능력자를 협박해 보증대부계약 체결 사례도 있었는데, 실제 정신지체3급 장애인이 주채무자와 중개업자가 잠적해 2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 피해예방 요령 3가지

1. 불가피한 보증시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을 준수하는지 확인
2. 연대 보증 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대부(중개)업체가 정상등록업체인지 확인, 대부업자와의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3.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

<민생경제과>

| 사진으로 보는 뉴스



10월 19일,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제2회 서울 전통시장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

이 박람회는 서울시가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 개발과 홍보 등 시장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서울시에 위치한 74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이 참여했다.

<민생경제과>



'서울 도시농업박람회'가 9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텃밭에서 식탁까지'를 주제로 열린 박람회에선 생활 속 도시농업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사체험관이 운영 됐다.

<민생경제과>



한복원단으로 만든 키홀더, 천연염색 핸드메이드 모자, 손자수러너부터 청바지 리폼 슬리퍼까지...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핸드메이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2014 서울 핸드메이드 박람회'가 10월28일 ~30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됐다.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시가 10월 14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1관에서 개최한 2014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 : The World is Yours에 구직자 2,130명이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25개 외국계금융사, 26개 외국인투자기업 등 총 51개 글로벌기업이 참여했다.

<투자유치과>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가 10월 28일 영등포와 관악구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박람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11회에 걸쳐 진행된 박람회에는 333개 기업과 1만 5천 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기업은 인재를 찾고, 구직자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창업취업지원>